

갤러리 색즉시공



견처(見處)

손수레에 뽕튀기를 파는 노보살님은 내가 본 분 중에 주름살이 가장 많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광복동 그 자리에 계십니다.

햇빛이 짹짹 내리쬐는 날에도 그 자리에 앉아 담배 하나 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어가 세 날 돈을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육천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아마도 덕산 스님에게 떡 파는 노파의 점심(點心)의 견처(見處)가 뽕튀기 할머니의 주름 속에도 있는 듯합니다.

그림·글·희상 스님

아이들이 키운 어머니

좀 더 일찍 불교를 만나 출가했다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금생에는 두 아들을 생산하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나 싶은 때가 있다. 종진 스님께서(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라는 책을 선물로 주시던 날, 나는 그 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

“저는 아이들이 키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이들은 나를 좋은 어머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좋은 업,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심성이 좋은 그 아이들은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인연인가. 회사에 다니면서 영업 파트에 속해있던 남편은 직책상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또 술을 즐겨하는 편이기도 해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남편은 매일 늦어 얼굴 보기 힘들고, 나는 아이들 하고만 있어야 하는 사실과 직면하면서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저 남자는 다른 집 아들이고, 나에게도 아들 둘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아이들을 책임지고 반듯하고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나에게 내가 생산한 내 아이들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고, 그로인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헌신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틈만 나면 아이들을 어린 이대공원이나 미술관, 박물관에 데리고 갔다. 나는 그것을 ‘이란의 왕자교육’이라고 불렀다. 나는 내 집을 왕실로 여기고 거기에 사는 내 아들들을 왕자로 알고 키웠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었다.

“엄마, 사슴은 왜 빨이 났어?”

“다른 동물들이 습격해올 때 방어하려고 있는 거지.”

“엄마, 사람은 왜 말을 하는데 재네들은 말을 못해?”

“엄마, 파란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나는 내가 철학자가 되어가는 듯 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음식을 만들고 운동을 했다. 나무로 그네를 만들어 마당에 걸고 애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여주에 있는 조그마한 종중산에 딸린 밭이 있어서 대추, 살구, 사과나무를 심었고 개나리도 심어 아이들에게 나무 이름도 가르쳐주었다. 틈만 나면 야외로 나가 자연과 함께 했고, 음악회, 미술관도 부지런히 다녔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위해 투자했다. 여러 가지 운동과 여러 가지 약기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성정이 좋은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 수순을 나도 배웠다.

시댁 집안이 단촐하였기 때문에 한적하게 살았던 것도 아이들에게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금생이 아니고 전생의 인연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내게 좋은 인연으로 왔고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자랐다. 나는 아이들을 서두르지 않고 키웠다.

전철을 타고 애들과 함께 어디를 갈 때도 아이들이 잠이 들면 “빨리 일어나라” 하고 깨우지 않았다. 한 바퀴를 더 돌더라도 썰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내가 이 약속으로 죽고 사는 일 아니냐 만날 사람은 다음에 보면 된다고 생각할 만큼 무슨 일든지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애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어느 여름 날, 외출했다가 큰애는 걸리고 작은 애를 업고 가는데 아이들이 아이스케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마침 지갑에 차비만 남아 있는 터여서 망설이다가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물어보았다.

“여기서 집까지는 몇 정류장이나 더 가야한단다. 엄마한테는 차를 탈 수 있는 차비만이 있으니 아이스케기를 사먹고 걸어갈까? 먹지 않고 차를 탈까?”

아이들은 아이스케기를 먹고 걸어가자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리고 우리 셋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아이들 정성껏 키우다 보니 나도 함께 바르게 살게 돼

은 아이스케기를 사먹고는 천천히 집까지 걸어갔다. 그렇게 나는 내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

어느 날 두 아들의 손등에 시퍼런 멍 자국이 생긴 걸 보게 됐다. 둘이 싸운 것이다.

소리 내서 싸우면 엄마가 들을 테니까 동생은 형의 손등을, 형은 동생의 손등을 누른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이 내 삶의 거울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더 조심하고 살아야겠다.”하고 생각했다. 경전을 보는 것만이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선지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마음을 고르면서 살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인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

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재산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학교에서 다녀오면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는 것부터 가르쳤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방을 제 자리에 놓고 손을 씻은 다음 방을 정리 정돈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오게 했고, 물을 마시고 난 뒤에는 컵을 바로 씻어서 제 자리에 놓게 했고, 식사를 할 때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꼭 인사를 하게 했고, 다 먹고 나서는 의자를 식탁 밑으로 반듯하게 집어넣으라고 가르쳤다.

한 동네 사는 어른들께도 인사를 잘하는 것은 기본 예의로 가르쳤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이 소외되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이런 사회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보아도 모두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은 좋은 인성을 쌓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예의가 사라진 사회는 인간미 없이 삭막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모든 사회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본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만나는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어른들이 후에 나에게 아이들 칭찬을 해주었다.

“어머 이 집 애들은 어찌된 그렇게 단정해요? 놀이터에서 놀아도 반듯하게 놀던데요.”

이렇게 덕담을 듣는 것이 바로 불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덕담을 하는 것도 불공을 드리는 것과 같으니, 인사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 된다.

아이들이 다 성장한 지금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사를 할 때는 꼭 서서 양손을 내리고 발을 붙이

고 공손히 해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덕이 되더구나. 엄마가 잘한 건 인사 잘한 것 밖에 없는 것 같구나.” 인사가 만사의 시작이다.

동국대에서 공부할 때 가끔 출가한지 얼마 안 되는 스님들을 뵈게 되면 꼭 드린 말씀이 있다.

“인사 하나만 잘하세요. 인사 잘하는 스님으로 나오세요.”

인사는 상대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속이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진짜 여유다. 교육은 기본예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선시대 송시열의 글 ‘계녀서(戒女書)’에는 그 기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터라 적어본다.

말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친다. 그러나 이들도 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한다. 아이를 어릴 때부터 속이지 마라. 심하게 때리지 마라. 글을 가르칠 때는 순서 없이 권하지 마라. 하루 세 번씩 권하여 책을 읽게 하라. 난잡한 장난을 못하게 하라. 사람 보는 곳에서 놀지 말게 하라.

세수를 일찍 하게 하라.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게 하라. 불량한 친구와 사귀지 못하게 하라.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옛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게 하라. 15세가 지나면 아버지가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한 걸 같이 교육하면 자연히 바람직한 선비가 된다. 딸을 가르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부디 철저히 하고 다부지게 교육하라. 놀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교육이다. 부디 잘 가르쳐라.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새겨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급급같은 조언들이었다. 이렇게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바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아이들을 키웠지만 결국 아이들이 나를 키운 것이나 같다.

<여여원 원장>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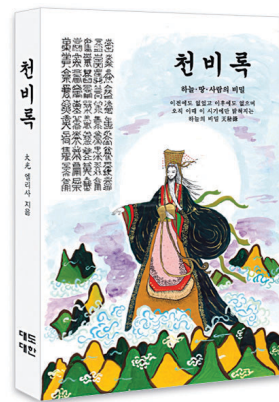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천비록(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몽문고/처음서림/세원출판/중앙당서점/충정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달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생명 에너지가 굳건히 지킴엔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숙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을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환용 알갱이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숙염 구매시 사은품 (환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